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을 마치고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부제: 21C 화학산업의 르네상스)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남 통영시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은 예전에 본 학회 단독으로 개최하던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과는 달리 화학산업이라는 학문적 뿌리를 같이하는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공동 주최로 세 학회 89명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학문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갖고있는 응용화학 분야는 1960년대 초에 전문화 시대가 열리면서 세분화되어 1962년 한국화학공학회, 1977년 한국고분자학회, 1990년 한국공업화학회가 창립되었고 현재는 모두 전국 규모의 대형 학회로 성장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분화된 유사 분야 사이에 긴밀한 학문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21세기 화학산업 분야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분야 학회들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걸음으로 "21C 화학산업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이번에 개최된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은 의미가 있었다. 첫날 오후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동진세미켄 이부섭 사장의 "21C 지식기반 사회와 화학산업"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학연구소의 서유한 소장님이 "스트레스와 치매"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흥미있게 들었다. 저녁에는 동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였으며 특히 참여회원 자녀들에게는 YMCA 오락 진행자를 초청하여 재미있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선물을 고루 나누어주었다. 둘째날 오전에는 LG화학기술연구원의 여종기 사장이 "21C 화학산업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R&D를 통한 화학산업의 발전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이어 서강대학교 유기공 교수님의 "공학도의 하절기 건강비결" 강연이 많은 관심 속에서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체육대회와 관광을 통해 회원간 혹은 가족간의 친목과 유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셋째날에는 3개 학회 통합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회간 유대 강화 방안,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 발전 방안, 학술대회 공동 개최 방안 등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본 학회 회원들의 참석자가 많지 않았고, 특히 산업계 회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산업계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은 한국화학공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내년의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은 본 학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본 학회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다 참신한 기획은 물론 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의 보다 성공적인 연합심포지움을 기원하면서 끝으로 본 행사에 참가하고 도와주신 회원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기획이사 김창근)

□ 2001 산·학·연 여름 연합심포지움 참가자 명단

경북대학교	이동호	한국화학연구원	신병철	기획이사	김상울
서울산업대	노인섭	한국화학연구원	조선행	기획이사	김창근
숭실대학교	허완수	한양대학교	조창기	기획이사	우종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용석	회장	김성철	조직이사	나재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건웅	전무이사	이두성		
한국화학연구원	김승수	총무이사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박수진	재무이사	임순호		
					총 18명

